Global Market Report 13-018
2013.03.13

한미 FTA 발효 1주년, 對美 수출 성과 분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

목 차

요 약 / 1

Ⅰ. 최근 미국의 수입동향

6 1. 주요국별 수입동향
7 2.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8 3. 對韓 수입동향

Ⅱ. 中企 FTA 수혜품목 및 활용 성공사례

16 1. 내연기관용 공기필터
18 2.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19 3. 브레이크 패드
22 4. 윈도우 레귤레이터
23 5. 자동차 콘덴서
25 6. 에어스타터(Air Starter)
27 7. 자동차용 열교환기
29 8. 자동차용 와이퍼
31 9. 고무 가스켓(gasket)
33 10. 위성 안테나
35 11. 커넥터
37 12. 핸드드라이어
40 13. 레이저 금속 가공 기계
43 14. 폴리에스터 직물
46 15. 양념 바다장어
49 16. 휴대폰 케이스
53 17. 산업용 장갑
56 18.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59 19. 플라스택 용기
61 20. 열쇠고리
64 21. LED 조명

Ⅲ. 바이어 인터뷰를 통한 시장여건 전망

67 1. 자동차부품
69 2. 전자기기 및 부품
71 3. 섬유 및 의류
73 4. 기계류
74 5. 식품
75 6. 정부조달 관련 제품

요 약

□ 최근 미국의 수입동향

○ 주요국별 수입동향

- 미국의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재정절벽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입증가율이 감소**
  * 對세계 수입증가율 : 22.7%('10) → 15.4%('11) → 3.1%('12)
- 일본을 제외한 모든 수입상위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 감소
  * 국별 수입증가율('11년→'12년) : 중국(9.4%→6.6%), 캐나다(13.6%→2.8%) 멕시코(14.3%→5.6%), 일본(7.0%→13.5%), **한국(15.9%→3.9%)**, 대만(15.5%→6.2%)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증가품목) **자동차・부품, 기계류, 철강제품**
- (감소품목) **석유제품, 반도체, 컴퓨터부품・액세서리 등**

○ 對韓 수입 동향

-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큰 비중(16%)을 차지하는 무선통신기기(해외생산확대), 반도체(단가하락지속), 컴퓨터부품・액세서리(글로벌 수요위축 및 단가하락지속) 수출 감소로 미국의 대한 수입증가율 감소폭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나타남.
  * 상기 3개 품목을 제외한 미국의 올해 상반기 대한 수입증가율은 14%에 육박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대미 수출에서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 비중이 높은(17%) 대만의 경우 올해 상반기 수입은 6.2% 감소
- (수입증가 품목)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고무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철강·철강제품, **밸브·펌프·공작기계**·건설중장비 등 **일부 기계류**
  * FTA 수혜품목별 상반기 대미수출 증가율 : 기계(8.11%), 자동차부품(24.18%), 고무제품(8.36%), 플라스틱제품(15.72%), 섬유제품(5.63%)
- (수입감소 품목)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부품・액세서리 외에 대한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변압기** 등이 대표적

□ 중소기업 FTA 활용성공 사례

구분	품목명 (관세율 변화, '13 기준)	활용 성공 사례
자동차부품	① 내연기관용 공기필터 (2.5%→0%)	·K社 :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하던 바이어 C社는 한미 FTA체결 이후, K社와 접촉하여 품질 테스팅 및 가격 조율을 마친 상황
	②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2.5%→0%)	·A社 : 바이어 D社의 품질조사팀이 한국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마치고 최종 조율 단계, 2013년 약 50만 달러가량의 물량을 1차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이후 추가 선적의 가능성도 큼.
	③ 브레이크 패드 (2.5%→0%)	·S社 : 2.5% 관세 철폐 효과를 바이어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미국 Tier-1 업체인 G社 경영진이 직접 한국공장을 방문하는 등 마무리 조율 중, 납품 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예상
	④ 윈도우 레귤레이터 (2.5%→0%)	·K社 : 기존 바이어인 G社사의 글로벌 차종 수주 확정이 이어짐과 함께 2.5% 관세철폐로 관세납부액이 감소, 미국 시장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이 현재보다 30% 이상 증가할 전망(미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90%를 차지)
	⑤ 자동차 콘덴서 (5.6%→0%)	·H社 : 5.6%의 관세철폐로 기존 바이어 F社에 납품하는 규모가 400% 증가
	⑥ 에어스타터(Air starter) (2.5%→0%)	·S社 : 지속적인 마케팅을 통해 2012년 6월 신규 공급선을 물색 중이던 R社와 납품계약 체결, Minexpo 참가를 통해 발굴한 A社와도 2012년 하반기 5만 달러, 2013년 1월 2만 2,000달러의 계약 성사
	⑦ 자동차용 열교환기 (4.2%→0%)	·T社 : 관세철폐 효과에 힘입어, 중국과 대만에서 해당 부품을 수입하던 V社와 25만 달러의 납품계약 체결
	⑧ 자동차용 와이퍼 (2.5%→0%)	·A社 : 관세철폐 효과를 즉시 볼 수 있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에 주력, 기존 바이어인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S社와의 거래 확대, 2012년 약 150만 달러의 수출 실적 달성
	⑨ 고무 가스켓(gasket) (2.5%→0%)	·P社 : 일본, 대만, 중국 등지에서 주로 수입하던 바이어 C社가 샘플 요청, 향후 납품여부 계속 협의 계획
전자기기	⑩ 위성 안테나 (3%→0%)	·I社 : 3%의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상승으로 2012년 전년 대비 30% 증가한 450만 달러의 수출 실적 달성
	⑪ 커넥터 (2.7%→0%)	·연합정밀 :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창출 프로그램 'Ability One'을 활용, 미국 장애인 고용업체 납품을 통해 미 연방정부에 우선 공급권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군용 및 민간용 커넥터 수출에 성공

기계	⑫ 핸드드라이어 (2.3%→0%)	·S社 : 수준 높은 품질과 2.3%의 관세 철폐 효과를 내세워 방위산업 대형 조달업체 R社를 통해 최근 300만 달러 제품구매를 확정짓고 납품절차 논의 중
	⑬ 레이저 금속 가공 기계 (3.5%→2.1%)	·H社 : 고가로 거래되는 특성 상 관세 인하(3.5%→2.1%) 효과가 높아, 가격경쟁력 유지에 도움
섬유	⑭ 폴리에스터직물 (14.9%→11.9%)	·YD Textile : KOTRA의 '한미 FTA 수출 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가, Armani Exchange, Kate Spade 등 유력 바이어 발굴 및 2013년 1월 Lisa International社와 3만 7,000 달러 규모의 납품계약 체결
식품	⑮ 양념 바다장어 (4%→3.2%)	·G社 : 2012년 중국산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관세인하 효과까지 겹치며 경쟁력 증가, 미국시장에 적합한 제품 개발을 앞세워 시장 진출 성공
기타	⑯ 휴대폰 케이스 (20.0%→0%)	·I社 : 원목이 포함된 제품 특성상 단가 인하가 어려워 수출 실적이 저조했으나, 20.0%의 관세 철폐로 관세 납부액이 감소하여 2012년 美 5대 휴대폰 케이스 업체인 ifrogz社에 200,000 달러 납품
	⑰ 산업용 장갑 (13.2%→0%)	·C社 : 13.2%의 관세철폐로 경쟁력이 급상승, 지속적인 샘플 공급으로 기업 신뢰도를 쌓아, 1년 1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2012년 5월 40만 달러 규모의 납품계약 체결
	⑲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3.1%→2.4%)	·P社 : 미국 현지에 지사를 설립,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직접 유통망에 납품하는 전략으로 2012년 200만 달러 규모의 판매망 구축에 성공
	⑳ 플라스틱 용기 (3.0%→2.4%)	·B社 : 기존에는 대미 수출 성약이 전무하였으나, 관세 인하로 2012년 3월 최초의 대미 수출실적 기록
	㉑ 열쇠고리 (2.9%→0%)	·H社 : 독특한 디자인과 함께 2.9%의 관세철폐로 관세납부액이 감소하여 기존 바이어들로부터의 주문이 200% 이상 증가
	㉒ LED 조명 (3.9~6.0%→0%)	·H社 : 가격경쟁이 치열한 LED 조명시장 특성 상 3.9~6.0%의 관세철폐로 경쟁력이 급상승,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된 LED EXPO에 참가하여 미국 바이어 MaxLite社와 500만 달러의 납품계약 체결

□ 바이어 인터뷰를 통한 시장여건 전망

산업	기업명	취급 품목	매출규모 (억 달러)	인터뷰 내용
자동차부품	F社	자동차	1,340	-FTA 발효를 통해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향후 한국산 부품의 소싱 가능성 증가 -한국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며 가격 경쟁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고 부품 설계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
	M社	자동차	11.5	-FTA 발효를 통해 동사와 한국 간 비즈니스가 향후 최소한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 -향후 한국 업체들의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 생산설비를 갖추거나 기술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D社	자동차부품	13.5	-향후 한국과의 비즈니스는 약 20% 이상 증가할 전망 -한국 공급업체들은 글로벌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
	G社	자동차부품	11	-현재 한국보다는 일본과 대만에서의 조달비중이 크나, 향후 한국산 제품의 조달을 확대할 계획
	A社	자동차부품	61	-기존에는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에서 수입하였는데, 최근 대만에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지역 소싱에 박차를 가하던 중 한미 FTA가 체결되어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중국산에 비해 품질은 좋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던 한국산 제품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액세서리, 에어콘 시스템, 엔진 시스템, 서스펜션, 샤시 등 애프터마켓 자동차 부품 전반에 걸쳐 관심
기계	C社	건설 중장비	659	-지난 몇 년간 한국산 부품 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사업 기회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구매를 확대할 계획
전자기기	Radio Shack	전자기기 소매	43.7	-최근 미국 전자기기 소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동 사는 마진의 폭을 좁힐 수 없어 중국산 제품들을 선호해 왔음.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잠재적 구매처로 생각해왔던 한국산 전자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 혁신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입을 희망함.

섬유 · 의류	Ralph Lauren	남녀 의류	68	-의류 완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적어 관세인하 혜택은 제한적인 상황이며, 일부 미국 중저가 대형 유통업체들은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의류를 소싱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Guess	남녀 의류	26.9	-한미 FTA가 한국 제품 조달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 제품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 창출 -협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유행에 민감한 한국기업들의 장점과 한미 FTA 발효가 맞물려 한국제품 구매를 확대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American Apparel	남녀 의류	5.4	-한국산 제품은 타국 제품보다 품질이 월등하며,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로 쉬폰 등의 한국산 원단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선 전환 계획도 갖고 있으며,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계획
	Armani Exchange	남녀 의류	18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패션시장 전반에 인조가죽, 비스코스, 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를 위주로 한국 제품으로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이 있음. -한국 섬유는 한미 FTA에 힘입어 좋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향후 바이어를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
식품	S社	식품 유통	420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한미 FTA 발효로 관세 또한 대부분 철폐되어 한국 식품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S社	식품 유통	361	-미국 경제 침체에 따라, 품질은 유명 브랜드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자사 브랜드 (PL; Private Label)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 -한국산 제품의 경우 음료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품질은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한국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
	H Mart	식품, 생활용품	10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로 수입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음. -최근 미셸 오바마가 김치를 담그는 등 미국인들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

1 최근 미국의 수입동향

□ 주요국별 수입동향

○ 미국의 경기회복이 둔화되고 재정절벽 등의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전반적인 수입증가율이 감소**(對세계 수입증가율 : 22.7%('10) → 15.4%('11) → 3.1%('12))

- 2013년 예산통제법 발효로 인한 경기 침체가 전망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신규 자본재 구입 및 설비 투자를 축소하거나 연기함.

○ **일본을 제외한 모든 수입상위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율이 감소**했으며,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및 반도체 등의 수입이 감소**

- 대지진 사태(2011.3월)로 급감했던 일본산 자동차 생산이 회복되고, 도요타·혼다 등의 공격적인 마케팅 시행에 따라 對日 자동차 수입 급증

- 한국의 무선통신기기(HS 8517), 반도체(HS 8542), 컴퓨터부품 및 액세서리(HS 8473)의 對美 수출 감소로 미국의 對韓 수입증가율 감소폭이 다른 국가보다 크게 나타남.

  * 수입액 기준, 상기 3대 품목은 미국의 對韓 수입의 16% 차지(US$ 94억 1,382만)

  *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가 17%(US$ 64억 7,200만)를 차지하는 미국의 對대만 수입 역시 2012년 마이너스 성장률(-6.2%) 기록

<미국의 주요국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2010	2011	2012
對세계	1,913,160(대미 수입액)	2,207,824	2,275,392
	22.7%(전년대비 증감률)	15.4%	3.1%
對중국	364,944	399,361	425,644
	23.1%	9.4%	6.6%
對캐나다	277,647	315,346	324,246
	22.7%	13.6%	2.8%

	2010	2011	2012
對멕시코	229,908	262,864	277,653
	30.2%	14.3%	5.6%
對일본	120,545	128,925	146,388
	25.8%	7.0%	13.5%
對독일	82,429	98,663	108,524
	15.3%	19.7%	10.0%
對한국	**48,875**	**56,661**	**58,880**
	24.6%	**15.9%**	**3.9%**
對사우디아라비아	31,413	47,476	55,667
	42.4%	51.1%	17.3%
對인도	29,533	36,153	40,518
	39.5%	22.4%	12.1%
對대만	35,846	41,405	38,860
	26.4%	15.5%	-6.2%

자료원 : World Trade Atlas(미국 관세청 수입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 (증가) 자동차·부품, 기계류, 철강제품

- 美 자동차 Big 3 회복세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 및 완성차 판매 호조로 자동차·부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18.47% 증가

- 미 제조업 생산 증가 및 자본재 구매에 대한 세제혜택에 힘입어 시설·설비투자 증가, 일반기계류와 섬유·피혁기계를 중심으로 기계류 수입 증가

- 미국 내 천연가스 생산 증가 및 건설경기 회복세에 따라 철강파이프 및 플랜지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증가하며 철강제품의 수입이 증가

○ (감소) 석유제품, 반도체, 컴퓨터부품·액세서리 등

- 유가가 상대적으로 싸지면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미국 정유 업체들의 원가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제시설 가동률이 상승, 석유 수입 감소

- 전자기기류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4.66%)하였으나, 반도체(-0.1%), TV 수신기(-1.7%), 컴퓨터부품·액세서리(-7.6%) 등의 품목에서는 수입 감소

<미국의 주요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2년 수입액	전년 대비 증감률
-	총 계	2,275,392	3.06
27	광물성연료	424,636	-6.46
84	기계류	307,550	6.94
85	전자기기류	291,541	4.66
87	자동차/부품	240,028	18.47
73	철강제품	37,727	17.47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對韓 수입 동향

○ 2012년 미국의 對韓 수입은 **3.9% 증가에 그침.**

-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부품・액세서리 등의 수입 감소로 2010년 24.6%, 2011년 15.9%에 육박했던 대한 수입증가율이 대폭 둔화
- 상기 3개 품목(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부품・액세서리)을 제외한 미국의 2012년 對韓 수입 증가율은 14%에 육박

○ **(증가 품목)** 석유제품, 고무류, 플라스틱류, 섬유류, 철강・철강제품, 자동차・부품, 밸브・펌프・공작기계・건설중장비 등 일부 기계류

- (석유제품) 전반적인 수입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 따른 관세 혜택에 힘입어 한국산 수입 증가
- (자동차・부품) 한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 및 수출평균단가 상승 등에 힘입어 2012년 지속적인 수입 증가세를 보이며 사상 최대 실적 시현

○ **(감소 품목)**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컴퓨터부품・액세서리 외에 수입규제 대상품목인 냉장고, 세탁기, 변압기 등이 대표적

- (무선통신기기) 중국 등 해외로 한국 기업들의 생산 공장 이전 확대
- (반도체) 세계경기위축, 환율하락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하락 및 수출 감소가 지속되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출도 함께 감소

<2012년 FTA 수혜품목별 대미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HS 코드	품목명	2012년 수출액	전년 대비 증감률
84	기계	11,173	8.11
8708	자동차부품	3,848	24.18
40	고무제품	2,156	8.36
39	플라스틱제품	1,465	15.72
50~63	섬유제품	1,270	5.63

자료원 : World Trade Atlas(미국 관세청 수입통계를 토대로 집계)

<주요 대한 수입 증가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HS	품목명	對韓 수입액		對韓 수입 비중			FTA 관세철폐 스케줄
			2012	증감률 (12/11)	2010	2011	2012	
석유·화학	2710	석유와 역청유[1]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2] 및 웨이스트오일	2978.9	28.1	4.73	4.11	5.06	즉시철폐
	2902	환식탄화수소	738.4	7.8	1.21	1.21	1.25	무관세 지속
플라스틱류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 또는 기타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에 한함)	85.6	28.1	0.1	0.12	0.15	6.5% 단계철폐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에 한함)	182.0	50.9	0.21	0.21	0.31	6.5% 단계철폐
	3907	폴리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에 한함)	203.7	27.9	0.25	0.28	0.35	5.8~6.5% 즉시철폐
	3918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3],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제의 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109.9	49.3	0.12	0.13	0.19	4.2~6.5% 단계철폐
	3923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포장용기, 플라스틱 뚜껑·마개·캡 및 유사품	174.4	6.8	0.28	0.29	0.3	3~5.3% 단계철폐
	3926	플라스틱제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 기타 물품의 제품	142.7	25.6	0.19	0.2	0.24	0~6.5% 단계철폐
고무류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에 한함)	1615.2	10.4	2.41	2.58	2.74	4% 단계철폐
	4016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4]	137.4	18.7	0.2	0.2	0.23	0~4.2% 단계철폐

구분	HS	품목명	對韓 수입액		對韓 수입 비중			FTA 관세철폐 스케줄
			2012	증감률 (12/11)	2010	2011	2012	
섬유류	5208	면직물[5]	130.2	2.7	0.23	0.22	0.22	0~14.7% 단계철폐
	5402	합성필라멘트사[6]	97.8	29.5	0.14	0.13	0.17	0~8.8% 단계철폐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7]	177.3	30.0	0.29	0.24	0.3	0~4.3% 즉시철폐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8]	82.4	20.8	0.12	0.12	0.14	0~14.1% 단계철폐
철강제품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9] (열간압연한 것에 한함)	722.1	26.4	0.61	1.01	1.23	무관세지속
	7210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10]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에 한함)	309.1	21.7	0.41	0.45	0.53	무관세지속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봉이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84.3	29.0	0.05	0.12	0.14	무관세지속
	7304	철강제(주철은 제외)의 관과 중공 프로파일(무계목(無繼目)에 한함)	88.7	50.0	0.09	0.1	0.15	무관세지속
	7305	철강제의 기타 관[11]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172.3	110.9	0.07	0.14	0.29	무관세지속
	7306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 프로파일[12]	1499.8	20.7	1.66	2.19	2.55	무관세지속
	7307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13]	159.6	24.2	0.21	0.23	0.27	0~6.2% 단계철폐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 제외)과 구조물의 부분품[14],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과 유사품	219.1	106.1	0.17	0.19	0.37	무관세지속
	7318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 및 유사품	198.6	27.1	0.25	0.28	0.34	0~5.8% 즉시철폐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95.6	37.2	0.1	0.12	0.16	0~8.6% 즉시철폐
기계류	8404	제8402호 또는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15]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127.4	108.5	0.07	0.11	0.22	3.5~5.6% 단계철폐
	8407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385.6	7.1	0.08	0.64	0.66	3.5~5.6% 즉시철폐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333.0	38.9	0.49	0.42	0.57	0~2.5% 즉시철폐
	8412	기타의 엔진과 모터	112.6	34.4	0.09	0.15	0.19	무관세지속

구분	HS	품목명	對韓 수입액		對韓 수입 비중			FTA 관세철폐 스케줄
			2012	증감률 (12/11)	2010	2011	2012	
기계류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불문)와 액체엘리베이터	303.3	27.5	0.33	0.42	0.52	무관세지속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 불문)	403.2	10.4	0.62	0.65	0.69	0~4.7% 즉시철폐
	8415	공기조절기[16]	168.8	16.7	0.21	0.26	0.29	0~1.4% 즉시철폐
	8418	냉장고·냉동고 기타의 냉장 또는 냉동기구(전기식인지의 여부 불문) 및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 제외)	1076.9	3.9	1.92	1.83	1.83	0~1.9% 즉시철폐
	8419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장치[17]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	180.9	65.1	0.27	0.19	0.31	0~1.9% 즉시철폐
	8427	포크리프트트럭, 기타의 작업트럭[18]	199.2	18.7	0.18	0.3	0.34	무관세지속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	784.3	107.5	0.33	0.67	1.33	무관세지속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품	319.7	36.6	0.26	0.41	0.54	무관세지속
	8457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유닛 컨스트럭션 머신(싱글스테이션)·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신	124.9	52.8	0.06	0.14	0.21	3.3~4.2% 즉시철폐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	282.9	67.0	0.15	0.3	0.48	4.2~4.4% 단계철폐
	8466	제8456호 내지 제8465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19]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	75.3	113.0	0.08	0.06	0.13	0~5.8% 단계철폐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20]	1217.7	26.5	1.15	1.7	2.07	무관세지속
	8472	기타의 사무용 기계[21]	136.9	18.0	0.17	0.21	0.23	0~2.6% 즉시철폐

구분	HS	품목명	對韓 수입액		對韓 수입 비중			FTA 관세철폐 스케줄
			2012	증감률 (12/11)	2010	2011	2012	
기계류	8480	금속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22]·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	90.3	124.3	0.11	0.07	0.15	0~3.8% 즉시철폐
	8481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 및 이와 유사한 장치[23]	450.0	17.4	0.51	0.68	0.76	2~5.6% 즉시철폐
	8482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	97.1	13.3	0.13	0.15	0.17	2.4~9.9% 균등철폐
	8483	전동축[24]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25], 플라이휠과 풀리[26],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27]	259.5	11.0	0.36	0.41	0.44	0~5.7% 단계철폐
전자기기류	8501	기와 발전기(발전세트를 제외)	228.6	39.3	0.25	0.29	0.39	0~6.7% 즉시철폐
	8511	불꽃점화식 또는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 또는 시동용 전기기기[28],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29]와 개폐기	79.2	0.2	0.14	0.14	0.13	0~3.1% 즉시철폐
	8512	전기식의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기기(제8539호의 물품을 제외)·윈드스크린와이퍼·제상기 및 제무기[30]	268.9	1.1	0.41	0.47	0.46	0~2.7% 즉시철폐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31]	86.1	0.1	0.25	0.15	0.15	무관세지속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32]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	223.3	11.0	0.38	0.36	0.38	0~3% 즉시철폐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33]	145.0	89.5	0.08	0.14	0.25	0~6% 즉시철폐
	8534	인쇄회로	98.0	10.8	0.2	0.16	0.17	무관세지속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34]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	192.3	24.7	0.23	0.27	0.33	0~2.7% 즉시철폐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35],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05.3	74.7	0.43	0.41	0.69	무관세지속
	8543	기타의 전기기기[36]	266.3	58.6	0.24	0.3	0.45	0~2,6% 즉시철폐
	8544	절연[37] 전선·케이블[38]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39], 광섬유 케이블[40]	195.0	36.0	0.22	0.25	0.33	0~5.3% 단계철폐

구분	HS	품목명	對韓 수입액		對韓 수입 비중			FTA 관세철폐 스케줄
			2012	증감률 (12/11)	2010	2011	2012	
자동차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를 제외)	242.4	37.2	0.22	0.31	0.41	무관세지속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승용자동차와 기타의 차량[41]	10621.8	23.3	13.4	15.2	18.04	2016년 2.5% 관세철폐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3848.4	24.2	5.23	5.47	6.54	0~2.5% 즉시철폐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

1) 원유는 제외한다.
2)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3) 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4) 경질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5)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6)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7)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8)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9)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10) 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11) 예 :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12) 예 : 오픈심 또는 용접·리벳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에 한한다.
13) 예 : 커플링·엘보·슬리브
14) 예 :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
15) 예 :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제거기·가스회수기
16) 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17) 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18) 권양용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된 것에 한한다.
19) 가공물홀더·툴홀더·자동개폐식 다이헤드·분할대와 기타의 공작기계용 특수부착물을 포함한다.
20)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1) 예 :헥토그래프 또는 스텐실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 또는 지철기
22) 잉곳(ingot)용의 것을 제외한다.
23) 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
24)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
25) 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26) 풀리블록을 포함한다.
27) 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
28) 예 :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29) 예 :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
30)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의 것에 한한다.
31) 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2) 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3)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 또는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4) 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
35) 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36)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37) 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38) 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39) 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40) 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 여부를 불문한다.
41) 제8702호의 것을 제외하며, 스테이션 왜건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주요 대한 수입 감소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HS	품목명	對韓 수입액		對韓 수입 비중			FTA 관세철폐 스케줄
			2012	증감률 (12/11)	2010	2011	2012	
석유 제품	2707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42]	105.8	-66.0	0.16	0.55	0.18	0% or 종량세, 즉시철폐
기계류	8411	터보제트·터보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빈	301.7	-10.2	0.37	0.59	0.51	0~2.4%, 즉시철폐
	8421	원심분리기[43]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177.7	-22.2	0.40	0.40	0.30	0~2.5%, 즉시철폐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의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44]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261.8	-27.2	0.79	0.64	0.45	0~3.7%, 즉시철폐
	8450	가정형 또는 세탁소형의 세탁기[45]	554.6	-8.0	1.44	1.06	0.94	1~2.6%, 단계철폐
	8451	수세용·청정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46]·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용의 기계류[47]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 또는 기타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및 직물류의 권취용·재권취용·접음용·절단용 또는 핑킹용 기계	493.3	-11.8	1.09	0.99	0.84	0~3.5%, 단계철폐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48]	1,166.4	-26.2	5.43	2.79	1.98	무관세지속
	8479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49]	168.3	-27.0	0.40	0.41	0.29	0~2.8%, 단계철폐
	8486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	306.2	-12.3	0.59	0.62	0.52	무관세지속

구분	HS	품목명	對韓 수입액		對韓 수입 비중			FTA 관세철폐 스케줄
			2012	증감률 (12/11)	2010	2011	2012	
전자기기류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50]와 유도자	385.9	-10.9	1.07	0.77	0.66	0~6.6%, 즉시철폐
	8507	축전지[51]	351.8	-9.8	0.42	0.69	0.60	2.5~3.5%, 즉시철폐
	8516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의 이용기기[52], 손건조기, 전기다리미,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53]	116.2	-3.2	0.28	0.21	0.20	0~5.3%, 즉시철폐
	8517	전화기[54] 및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55]	5,524.8	-37.0	17.69	15.47	9.38	무관세 지속
	8523	디스크·테이프·고체상태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스마트카드와 음성 또는 기타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56]	336.5	-2.3	0.50	0.61	0.57	무관세 지속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아니한 모니터와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의 기기[57]	309.9	-37.0	1.04	0.87	0.53	0~5%, 단계철폐
	8529	무선전화 및 무선전신용 텔레비전 수신기기 , 라디오 방송 수신기의 부분품[58]	115.6	-8.2	0.23	0.22	0.20	0~4%, 단계철폐
	8531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59]	90.2	-13.3	0.23	0.18	0.15	0~1.3%, 즉시철폐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60]	109.7	-1.2	0.22	0.20	0.19	2.7% 즉시철폐
	8542	전자집적회로	2,722.6	-9.7	5.72	5.32	4.62	무관세 지속

자료원 : World Trade Atlas

42)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43) 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44) 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45) 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46) 퓨징프레스를 포함한다.
47) 제8450호의 것을 제외하며, 방적용의 사·직물류 또는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48) 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49)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50) 예 : 정류기
51) 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2) 예 :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컬링통히터
53) 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
54) 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55) 근거리 통신망 또는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을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 제8525호, 제8527호 또는 제8528호의 송신 또는 수신용의 기기를 제외한다.
56) 기록 여부를 불문하고, 디스크의 제조용의 매트릭과 마스터를 포함하되, 제37류의 물품을 제외한다.
5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 또는 영상의 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58)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S
59) 예 :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
60)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2 中企 FTA 수혜품목 및 활용 성공사례

품목명(1)	내연기관용 공기 필터	HS Code	8421.31.000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34%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의 자동차용 부품 애프터마켓 시장 규모는 2011년 약 2,975억 달러로 전년대비 4.1% 성장했으며, 2012년에도 4.1% 성장하여 약 3,097억 달러 기록

- 경차용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 규모는 2,335억 달러, 중형 및 대형 트럭용 애프터마켓 부품 시장규모는 762억 달러에 달함.

<자동차용 부품 애프터마켓 시장규모>

(단위 : 십억 달러)

Year	Automotive	Medium and Heavy Duty	Total Aftermarket	Yr./Yr. % Change
1997	$138.8	$53.4	$192.2	
1998	$141.8	$55.3	$197.1	2.6%
1999	$148.7	$58.6	$207.3	5.2%
2000	$157.2	$61.5	$218.7	5.5%
2001	$166.4	$60.9	$227.3	3.9%
2002	$178.1	$61.8	$239.9	5.6%
CAGR('98-02)	5.1%	3.0%	4.5%	
2002	$178.1	$61.8	$239.9	5.6%
2003	$182.2	$62.6	$244.8	2.0%
2004	$187.9	$63.5	$251.4	2.7%
2005	$194.9	$64.3	$259.2	3.1%
2006	$202.4	$67.0	$269.4	3.9%
2007	$209.9	$68.8	$278.7	3.5%
CAGR('03-07)	3.3%	2.2%	3.0%	
2007	$209.7	$68.8	$278.5	3.5%
2008	$210.2	$70.5	$280.7	0.8%
2009	$206.6	$67.4	$274.0	-2.4%
2010	$215.4	$70.3	$285.7	4.2%
2011*	$224.3	$73.2	$297.5	4.1%
2012*	$233.5	$76.2	$309.7	4.1%
2013*	$240.3	$78.4	$318.7	2.9%
2014*	$248.8	$81.2	$330.0	3.5%
CAGR('10-14)*	3.8%	3.8%	3.8%	

자료원: AAIA Factbook 2012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미국은 2012년 약 3억 7,637만 달러의 자동차용 필터 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58% 성장한 수치

-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29.66%), 독일(14.73%), 중국(13.19%)이며, 한국산 수입은 2012년 기준, 1,871만 달러로 전년대비 15.34%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멕시코	86	98	112	13.93
2	독일	42	50	55	10.45
3	중국	42	38	50	30.77
4	캐나다	38	40	38	-4.42
5	일본	30	33	32	-2.19
6	한국	16	16	19	15.34
합계		312	337	376	11.5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국내 K社는 한미 FTA 체결 이후 가격경쟁력 상승에 힘입어, 중국과 대만에서 저가의 필터 제품을 수입하고 있던 바이어 C社와 납품 협의 중

- 한국에서 에어/오일/케빈 에어필터를 생산하고 있는 K社는 KOTRA LA 무역관을 통해 마케팅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으며, 고품질의 제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Tier-1, Tier-2와 애프터마켓 바이어들에게 신용을 얻음.

- 중국과 대만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고 있던 바이어 C社는 한미 FTA 체결 이후,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생긴 한국 필터 생산업체에 관심

- C社에서는 LA 무역관을 통해 소개 받은 K社와 접촉하여 품질 테스팅 및 가격조율을 마친 상황이며, 아직 중국, 대만산에 비해 가격은 높지만 K社에서 생산되는 필터제품의 높은 품질에 만족

품목명(2)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HS Code	8708.91.5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46.15% 증가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미국은 2012년 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전년 대비 7.97% 늘어난 약 6억 7,540만 달러 규모의 라디에이터 제품을 수입

- 주요 수입국은 중국(35.18%), 멕시코(30.37%), 캐나다(7.95%)이며, 한국산 수입은 2012년 기준, 420만 달러로 전년대비 46.15%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179,127	196,755	237,575	20.75
2	멕시코	203,125	207,613	205,101	-1.21
3	캐나다	54,188	51,503	53,695	4.26
4	대만	34,552	38,382	40,780	6.25
5	인도네시아	40,744	39,450	37,815	-4.14
12	한국	2,242	2,877	4,205	46,15
합계		597,666	625,519	675,402	7.9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각종 Heat Exchanger를 생산하는 A社는 애프터마켓 부품 전시회인 AAPEX 2012 전시회에 참가하여 바이어들과 미팅

- 현재 미국 Tier 1업체 D社의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Quality Assurance 팀이 한국 공장을 방문하여 실사를 마치고 최종 조율 단계
- 약 50만 달러가량의 물량을 1차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년 중순에 첫 물량을 출하할 예정, 이후 추가 선적 가능성이 큼.

품목명(3)	브레이크 패드	HS Code	870830509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3.40%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2012년 미국의 경차(Light Vehicles) 판매는 2011년도 대비 13.4% 증가하여 1,449만 1,873대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4~7% 상승한 1,500만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

- 그 동안 부진을 보였던 토요타와 혼다 등의 일본 업체들의 판매가 빠르게 회복되어, 한국 자동차 판매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자동차용 브레이크 시장 규모는 약 105억 달러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평균 1.1%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09년 이후 미국 경기침체로 OEM 시장은 급격한 타격을 받았으나 전체 산업의 35%에 달하는 애프터마켓 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음.

- 경기불황으로 인해 신차 구입을 자제하고 기존 차량을 수리하여 타는 경향이 있어 자동차 수리나 애프터마켓용 자동차부품 수요 증가 전망

□ 경쟁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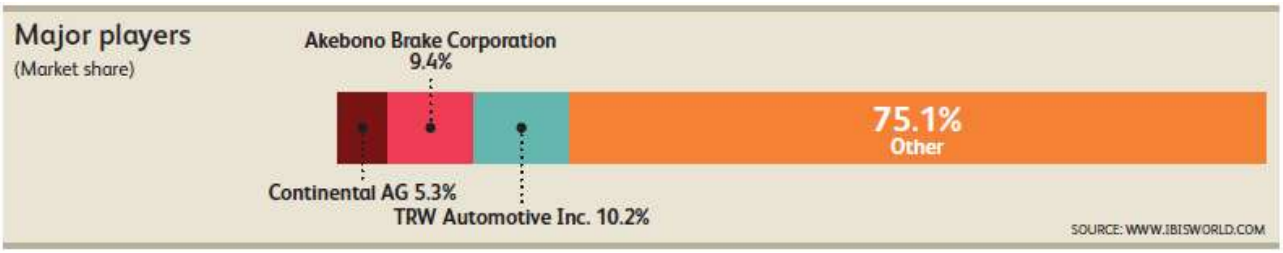
○ 현지의 주요 자동차용 브레이크 제품 생산업체들은 Akebono Brake Corporation, TRW Automotive, Continental AG, Affinia Group, Robert Bosch Gmbh, ArvinMeritor 등

- 이들 다수가 Tier-1 생산업체들로 브레이크 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부품들도 생산하고 있으며 Tier-2업체들로부터 OEM 공급도 받고 있음.

○ IBIS World가 발간한 “Automobile Brakes Manufacturing in the US" (2012년 5월)에 의하면 미국의 브레이크 시장 선도 기업은 TRW Automotive, Inc.로 전체의 10.2%에 달하는 시장을 점유

- 그 밖에는 Akebono Brake사가 9.4%, Continental AG사가 5.3%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업체들이 75.1%를 차지

<미국 자동차용 브레이크 시장 점유율>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미국은 2012년 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약 25억 8,437만 달러 규모의 브레이크 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9.19% 증가한 수치

-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26.57%), 일본(15%), 캐나다(14.26%)

- 한국산 제품은 2012년 기준, 2억 3,472만 달러로 전년대비 3.40%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멕시코	649	656	687	4.75
2	일본	314	324	387	19.76
3	캐나다	369	358	368	3.02
4	중국	320	316	363	14.85
5	한국	243	226	235	3.40
합계		2,289	2,367	2,584	9.1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한미 FTA의 관세철폐 혜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형 유통업체 G社에 약 10억 달러 규모의 납품 성과 창출

-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생산하는 S社는 미국 현지의 Tier-1 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에게 한미 FTA에 대한 문의 등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옴.
- 이후 동 사는 FTA에 대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서 최근 대형 유통업체인 G社로부터 관심을 얻는데 성공, G社의 경영진이 직접 공장을 방문하는 등 마무리 조율 중임.
- S社에서는 금년 중순에 오더 발주를 예상하고 있으며 물량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 전체 납품 규모는 약 10억 달러 정도로 예상

품목명(4)	윈도우 레귤레이터 (Window regulator) * 도어 글라스를 상하로 조절하는 장치	HS Code	8708.29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31.72%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2012년 미국 Big 3, 한국차, 일본차 모두 성장세를 보였으며, 2013년 역시 미국시장의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년 대비 31.72% 증가한 106억 2,100만 달러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멕시코	2,349.92	2,772.63	3,459.60	24.78
2	캐나다	2,352.79	2,626.97	2,976.83	13.32
3	중국	553.42	731.84	887.07	21.21
4	**한국**	**394.66**	**610.85**	**804.60**	**31.72**
5	독일	559.78	634.35	719.87	13.48
합계		7,690.28	8,919.61	10,621.76	19.0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해당 부품을 제조하는 K社는 현재 90%이상의 매출을 G社 납품을 통해 달성하고 있으며, FTA 발효를 계기로 향후 수출 증가 예상

- G社로부터 글로벌 차종용 제품에 대한 수주 확정이 이어짐에 따라 2015년 이후 미국시장을 포함한 전체 매출이 현 매출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품목명(5)	자동차 콘덴서	HS Code	840420
관세율 변화	5.6%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549.03%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2010년 이후, 미국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동 제품의 수요 역시 증가

- 중국산 제품의 가격 상승 및 품질 문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변화로 인해 한국산 수요 증가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한국산 자동차 콘덴서의 2012년 대미 수출액 1,549.03% 증가

-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6,589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49.03%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한국	10	3,996	65,889	1,549.03
2	캐나다	902	1,596	1,043	-34.64
3	중국	221	1,706	425	-75.10
4	인도	149	11	240	2,042.43
5	독일	29	40	86	114.86
합계		2,206	7,841	67,980	766.9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자동차 콘덴서 제조업체 H社는 연간 100만 달러 규모를 수출하던 기존 바이어 F社와 2012년 400% 증가한 규모의 납품 계약 체결

- F社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중국 제품 대비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던 차에 재고량이 감소하자 주문량을 늘리기로 결정
- 이는 한미 FTA 이후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상승과 중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품목명(6)	에어스타터(air starter) * 압축 공기나 고압의 질소 가스로 구동하는 엔진 시동 장치	HS Code	85114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27%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2013년 Aftermarket, Packagers 부문 강세 보일 듯

- Air Starters and Parts, Inc에 따르면 조선, 선박 부품시장은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단계로 향후 전망이 밝음.

- 시장 특성상 Aftermarket, Packagers, OEM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Aftermarket, Packagers 부분이 2013년에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

□ 경쟁동향

○ 주요 브랜드로는 Ingersol Rand와 TDI가 있음.

- 최근 납기일 준수 및 품질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국내기업들의 진출이 유망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최근 3년 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에는 약 2,500만 달러 기록

- 한편, 최근 3년 간 인도의 약진이 두드러져 인도의 對美 수출 규모는 2012년 전년 대비 570% 상승한 2,900만 달러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멕시코	357,765	419,279	524,257	25.04
2	일본	171,942	224,755	288,064	28.17
3	중국	115,063	129,402	154,502	19.4
4	독일	20,382	30,425	30,740	1.04
5	인도	3,633	4,395	29,537	572.05
6	한국	18,419	24,644	24,957	1.27
합계		771,122	924,394	1,158,808	25.36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KOTRA 달라스 무역관의 지사화 서비스를 이용 중이던 S社는 2012년 수요 증가로 신규 거래처를 물색 중이던 R社와 제품 수출 협의

- 이후 테스팅 샘플을 보내는 등의 지속적인 마케팅으로 지난 2012년 6월 납품 계약 체결

○ 또한 S社는 달라스 무역관의 권유로 Minexpo에 참가하여 신규 바이어인 A社와의 미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품질과 가격 면에서 호평을 받음.

- 그 결과, 2012년 하반기 5만 달러 납품 계약 체결에 이어 2013년 1월 2만 2,000 달러의 추가 계약 성사

품목명(7)	자동차용 열교환기 (heat exchanger)	HS Code	841950
관세율 변화	4.2%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30.80%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 자동차 시장 회복세에 따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2012년 경기 회복으로 미국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새로운 프로젝트 및 신제품 출시를 준비함에 따라 새로운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상황
-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한미 FTA가 발효되어, 미국 업체들이 저가 중국산에서 한국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30.80% 성장한 7,000만 달러를 기록

- 2011년 한국의 수출액은 중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12년에는 중국의 대미 수출액 6,469만 달러를 추월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독일	55,113	85,763	142,768	66.47
2	캐나다	67,987	68,828	93,321	35.58
3	멕시코	65,259	78,287	77,895	-0.50
4	한국	17,458	21,033	69,575	230.80
5	중국	45,846	58,941	64,698	9.77
합계		521,043	548,479	748,100	36.4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국내 자동차 에어컨 제조업체인 T社는 중국과 대만에서 관련 부품을 수입하던 V社와 지난 4년간 제품 수출을 놓고 긴 협상을 벌여오다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납품계약이 성사됨.

- 경기회복과 함께 신제품 출시를 위해 라인을 늘리려는 V社는 기존에 거래 중이던 업체들의 품질문제로 신규 공급처 발굴을 꾀함.
- V社는 T社로부터 수입하길 희망하던 부품의 관세가 철폐됨을 알고 열교환기 6종의 샘플을 요청, 2012년 3분기 25만 달러 규모 수입 결정
- V社 담당자 Wayne씨는 가격으로 고민하는 많은 기업에게 한미 FTA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하며, 향후 對韓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품목명(8)	자동차 와이퍼 (Windshield Blade)	HS Code	8512.4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9.93%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 경기 회복 및 제조업 회복세에 힘입어 자동차 생산량도 증가세

○ 또한 차량 평균 사용연수는 감소세인 반면 전체 차량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자동차 와이퍼 등과 같은 애프터마켓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경쟁동향

○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지리적 인접성과 NAFTA를 통한 가격경쟁력 등의 이유로 멕시코 제품의 비중이 가장 높음.

○ 중국산 OEM 제품은 최근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 감소세에 있으나, 수출 시장에 진출한 베트남산 저가 제품과의 경쟁이 예상됨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5,411만 달러를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멕시코	117,773	109,082	113,576	4.12
2	한국	14,869	45,113	54,105	19.93
3	중국	33,685	33,448	28,656	-14.33
4	독일	6,319	7,958	7,940	-0.23
5	베트남	N/A	356	5,580	1,468.49
합계		199,043	211,324	222,778	5.4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A社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해당 품목 관세 즉시철폐라는 점을 활용하여 대미 수출 전략을 애프터마켓 공략 위주로 재정립함.

- 이는 중장기(4~5년) 생산 주기를 고려하는 완성차 제조업체 납품과는 달리 즉각적인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기존 바이어인 자동차 부품 유통업체 S社와 거래 확대를 통해 2012년 약 150만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

품목명(9)	고무 가스켓(gasket) * 내연기관 실린더 헤드와 본체 사이의 접합용 배관재료	HS Code	4016.93.1050
관세율 변화	2.5%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5.15%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차량 평균 사용연수는 감소세인 반면 전체 차량 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애프터마켓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됨.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미국은 2012년 세계 각국으로부터 약 6억 3,170만 달러의 가스켓 제품을 수입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8.1% 성장한 수치

- 주요 수입국은 캐나다(24.2%), 멕시코(20.4%), 일본(13.17%)이며, 한국산 수입은 2012년 기준 5,501만 달러로 전년대비 25.15%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캐나다	196.74	190.42	159.19	-16.40
2	멕시코	74.23	101.10	128.67	27.26
3	일본	70.16	66.94	83.21	24.30
4	중국	35.78	49.63	66.95	34.90
5	한국	18.75	43.95	55.01	25.15
합계		497.80	584.39	631.7	8.10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미국 현지에서 온라인 판매를 활발히 하고 있는 바이어 C社는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산 엔진 및 트랜스미션 부품에 관심을 갖게 됨.

- 기존에는 일본, 중국, 대만 등에서 많은 물량을 수입하였으나, 한미 FTA 체결 이후 많은 관련 부품들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KOTRA LA 무역관에서 소개받은 P社의 엔진용 가스켓 제품에 관심을 보임.
- 현재 샘플 오더를 한 상태로, 검토 후 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예정
- C社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가 있으며 FTA 체결 이후 중국, 대만 등과의 가격경쟁에서도 기존보다 좀 더 나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언급

품목명(10)	위성 안테나 (Satellite Antenna)	HS Code	8529.10
관세율 변화	3%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83.5%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통신 산업이 다른 산업분야 전반에 거쳐 융합화, 인프라화 됨에 따라 위성용 안테나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특히 무선통신산업과 서비스산업의 융복합으로 위성 안테나의 수요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 가능

□ 경쟁동향

○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대만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약 50%에 육박

○ 최근에는 다른 산업과의 융복합 추세로 위성 안테나의 용도가 특화된 제품이 등장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임

- 기술적 원리는 유사하나 크기, 용도, 가격 등의 차이에 따라 선박용, 차량용, 방송용 등 차별화된 제품 시장이 형성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연간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83.5% 증가한 3,328만 달러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263,784	285,946	355,146	24.20
2	대만	68,135	80,380	82,604	2.77
3	영국	86,770	76,207	78,482	2.99
4	캐나다	43,758	51,312	58,707	14.41
5	멕시코	66,543	72,627	47,773	-34.22
9	한국	17,168	18,137	33,283	83.50
합계		**765,452**	**842,106**	**983,478**	**16.7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선박용 위성 안테나를 수출하는 I社는 2012년 대미 수출이 약 30% 증가하여 약 45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달성

- 미국 세일즈 에이전트를 통해 수출 통관을 하는 동 사는 선박용 제품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타깃 바이어가 한정적이고, 2012년 경쟁 업체들이 도산을 겪는 등 시장 환경도 어려웠음.
- 그러나 한미 FTA 발효 이후 관세 즉시 철폐에 따른 가격 경쟁력 상승이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에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

품목명(11)	커넥터(connector)	HS Code	8535908020
관세율 변화	2.7%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 전년 대비 14.38%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일반적으로 커넥터는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의료장비, 전기자동차, 산업용 공작기계, 로봇 등에 사용되며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됨.

○ 미국 전자설비 및 부품 중 커넥터가 활용되는 제품군은 매우 광범위하며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모가 큰 편

- 향후 제품의 광범위한 활용 가능성에 힘입어 높은 수요가 지속될 전망

□ 경쟁동향

○ TE Connectivity, Amphenol, Molex 3개 기업이 전체 미국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80%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

- 대표적으로 TE Electonics社는 2011년 사업자명을 Tyco Electronics에서 TE Connectivity로 변경하여 커넥터 사업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판매가 기업 전체 판매의 약 37%를 차지

-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중견기업들의 고객 네트워크가 견고히 형성되어 있어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출이 만만치 않은 시장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미국의 커넥터 총 수입량은 전년 대비 66.27% 증가한 1억 900만 달러 기록

- 국가별로는 멕시코와 인도산 커넥터 제품의 수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중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의 순

- 한국산 제품의 대미수출은 2012년 약 200만 달러로 그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나 2011년 대비 14.36% 증가해 주목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멕시코	4.283	29.564	64.249	117.32
2	인도	1.423	1.692	12.047	611.89
3	중국	6.081	10.567	8.779	-16.92
4	독일	1.740	4.153	6.674	60.70
5	네덜란드	2.773	2.114	4.019	90.06
7	한국	0.444	1.831	2.094	14.38
합계		28.926	65.910	109.586	66.27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한미 FTA 체결효과 홍보 등의 마케팅 노력 및 전략적인 제품 수출 노력을 바탕으로 군용 및 민간용 커넥터 수출에 성공

- 1980년 설립된 연합정밀은 방산장비, 케이블어셈블리, 커넥터, 와이어 & 케이블, 에나멜 와이어 등을 생산하는 방위산업분야 장비 및 부품 생산 업체이며 KOTRA 워싱턴무역관의 『방산선도사업』 참가 중임.

- 연방정부 차원의 장애인 고용창출 프로그램인 'Ability One'을 통해 연합정밀이 부품을 공급하고 미국 내 장애인 고용업체가 완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 정부에 우선 공급권을 확보하는 전략이 주효

- 이를 통해 마케팅과 A/S, 재고관리 등 외국 기업의 현지화와 관련된 각종 어려움까지 해소함.

품목명(12)	핸드드라이어 * 손을 내밀면 자동적으로 온풍이 나오는 건조 장치	HS Code	84145930
관세율 변화	2.3%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 전년 대비 85%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최근 미국 시장 내 환경보호에 대한 우려 확산 및 간편성을 이유로 페이퍼 타올 대신 핸드드라이어 설치가 늘고 있는 추세

- 핸드드라이어는 대부분 상업용으로 제작되어 가정보다는 공공시설이나 상업 시설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당 가격은 100 달러에서 2,000 달러까지 다양

- 과거에는 핸드드라이어의 건조 시간이 40초 이상 걸려 전기가 낭비되고, 건조 성능이 떨어지며, 세균 번식 속도가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함.

- 그러나 최근 출시되는 제품의 경우 살균기능을 하는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고 건조 시간 또한 10초 내외로 단축되어 고성능·고효율을 강조한 제품들이 다수 출시 →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가 예상

□ 경쟁동향

○ 다양한 가격대의 핸드드라이어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주요 업체는 영국의 다이슨(Dyson), 일본의 미츠비시, 미국의 World Dryer Corp. 등임.

- 미국에서 핸드 드라이어 제품을 50년간 생산해온 World Dryer Corp.가 시장을 선도해옴.

- 최근 영국의 생활가전 전문업체 다이슨이 싱가포르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생산시설 확장을 통해 미국과 중국, 일본 내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

- 특히 2013년 2월 다이슨이 공개한 '에어블레이드 탭'이라는 이름의 초간편 핸드드라이어는 수도꼭지와 일체형으로 설계된 센서를 이용해 자동으로 작동한다는 특성으로 주목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미국의 핸드드라이어 제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45.62% 감소하는 등 큰 폭으로 위축

○ 그러나 한국산 제품의 對美 수출은 2012년 2,500만 달러로 그 비중이 전년 대비 13,717% 대폭 증가해 주목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한국	0.135	0.187	25.805	13717.76%
2	일본	15.258	18.266	15.711	-13.99%
3	멕시코	4.543	68.732	5.067	-92.63%
4	중국	3.273	3.631	2.739	-24.55%
5	이탈리아	0.506	0.932	2.546	173.21%
합계		32.155	107.904	58.678	-45.6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프리미엄 핸드드라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S社는 KOTRA 워싱턴 무역관의 『조달선도사업』에 참가

- 워싱턴무역관의 마케팅 지원 및 한-미 FTA 체결효과 홍보 등의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 방위산업분야 대형 조달업체(prime contractor) 중 하나인 R社를 통해 거래 중인 바이어 에이전트와 연결

- 해당 바이어는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일반 제품보다 살균성능이 우수하고 효율도 높은 S社의 친환경 핸드드라이어에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한-미 FTA로 수입 관세 2.3%가 즉시 철폐된 것이 주효

○ 해당 바이어는 S社의 제품을 R社에 소개함으로써, 최근 300만 달러 상당의 제품구매를 확정짓고 납품절차를 논의 중

- 특히 S社의 납품 사례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2009년) 이후 절충교역을 활용한 중소기업 일반 상품의 최초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품목명(13)	레이저 금속 가공 기계	HS Code	84561010
관세율 변화	3.5% → 2.1%	관세철폐스케줄	5년 균등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40.8%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 금속가공기계 시장은 교체 수요 확대와 제조업 경기 회복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미국 공작기계 디스트리뷰터 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2년 미국 공작기계 판매 결산 보고'에 따르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판매 규모는 약 57억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약 2.6% 증가
- 제조기술협회 회장인 Douglas K. Woods씨에 따르면, 2012년 판매 규모는 지난 13년 동안 가장 높은 판매를 기록한 것으로 미국 제조업체들의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공작기계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美 제조업 경기가 견실하다는 것을 의미

○ 올해 기계 시장은 지난해 높은 판매 성장과 구매 주기에 따른 시차로 인해 약간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경쟁동향

○ 주요 경쟁국은 일본과 유럽으로 전체 수입의 약 60% 정도를 차지

- 특히 일본 3개사 Mazak, Mitsubishi, Amada와 유럽 2개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며 전체 수입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그 외에도 독일과 스위스 기업도 경쟁을 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의 경우 품질 면에서는 아직 한국산 제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주요 경쟁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최근 일본 업체들은 엔화 약세로 기계 판매 가격 할인 폭을 높이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은 악화되는 추세

- 한국산 기계의 브랜드 및 품질 인지도는 아직 일본산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기계 판매 확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낮은 인지도로 인해 시장 변화에 판매 실적이 민감하게 반응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한국산 레이저 금속 가공 기계 대미 수출 36.9% 급증

- 한국산 레이저 금속 기계의 2012년 대미 수출액은 68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36.9% 급증한 수치
- 전체 수출 국가 중 일본산 제품이 전체 수출액의 61%인 1억 6,576만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약 26.4% 급증하여 주목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일본	58,752	132,084	166,221	25.8
2	독일	20,920	39,051	35,412	-9.3
3	스위스	22,512	37,346	34,135	-8.6
4	이탈리아	17,370	22,657	31,551	39.3
5	한국	2,837	5,099	7,178	40.8
합계		128,360	247,585	289,518	16.9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국내 H社는 한미 FTA 발효로 기존 3.5%였던 관세가 2.1%로 낮아져 가격경쟁력 유지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힘.

- 레이저 금속 기계류 가격은 평균 40-50만 달러의 고가에 판매되고 있어 1.4% 관세 하락이 약 5,600-7,000 달러의 절감 효과 창출
- 최근 일본 업체들은 기존 가격의 약 5-10% 상당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 기계와의 가격 차이가 5%대로 좁아지는 추세
- 한미 FTA 발효로 인한 관세 절감은 가격 경쟁력 유지와 기계 구입자에게 추가로 할인해 줄 수 있는 여유자금 확보에 도움

품목명(14)	폴리에스터직물	HS Code	5407.69.20
관세율 변화	14.9% → 11.9%	관세철폐스케줄	10년 균등 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對美 수출액 전년대비 23.8%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2010년 이후 현지 시장수요 회복세 지속

- 미국 내 폴리에스터직물 수요는 2005~2009년 동안 부진*이 지속되었으나 2010년에는 증가세로 반전

  * 주요원인 : 전반적인 미국경기 침체, 미국 내 섬유생산 기반 해외이전 가속화

- 2010년 기준(2013년 2월 현재 가장 최신통계), 미국 내 폴리에스터섬유 수요는 약 31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13.2% 증가

  * 주요원인 : 미국경기 회복세, 면화가격 상승에 따른 혼방비율 확대로 Polyester 수요증가

<미국 폴리에스터섬유 수요 동향>

자료원 : Freedonia

○ 향후 미국 내 폴리에스터섬유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미국 경기 및 민간소비 회복에 힘입어 2015년까지 연평균 2.8% 증가하여 시장수요가 36억 파운드에 달할 전망(자료원 : Freedonia)

□ 경쟁동향

○ 미국 내 직물생산 업체 다수 존재

- 직물생산은 의류 생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집약적이고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높아 여전히 미국 내 직물생산업체 다수 영업 중

- 미국 내 직물 생산량은 2009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
  * 2011년 기준, 미국 직물생산 규모는 약 530억 달러로 2010년 대비 4% 증가

- 미국 내 주요 폴리에스터직물 생산업체는 Milliken, Polymer Group, Albany International Group 등

○ 미국의 주요 폴리에스터직물 수입대상국은 중국, 한국, 대만 등

- 2012년 기준, 폴리에스터 직물(HS Code 5407.69.20) 수입액은 약 1,510만 달러로서 전년대비 12% 증가

- 국가별로는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5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18.6%), 대만(6.7%), 터키(5.1%), 멕시코(4.0%) 등이 뒤를 이음.(2012년 기준)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對美 수출액 23.8% 증가

- 우리나라의 對美 폴리에스터직물 수출은 미국 경기회복에도 불구, 재고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1년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들어 회복세
  * 연도별 수출증가율(%) : △17.3('09) → 19.5('10) → △24.7('11) → 23.8('12)

-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국산제품 품질 수준에 대한 인식제고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14.9% → 13.4%, 2012년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분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4,651	6,069	8,246	35.9
2	한국	3,016	2,269	2,809	23.8
3	대만	1,063	1,219	1,008	-17.3
4	터키	682	1,583	764	-51.7
5	멕시코	473	723	602	-16.8
합계		11,562	13,401	15,072	12.5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KOTRA『한미 FTA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참가 통해 수출 성약

- 국내 폴리에스터 원단 제조업체인 YD Textile은 한미 FTA 활용을 위해 KOTRA의 '한미 FTA 수출선도기업 육성사업'에 참가, 뉴욕 무역관과 함께 미국시장 진출을 시도

- 뉴욕 무역관의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Armani Exchange, Kate Spade 등 유력 바이어들을 발굴하였으며, 섬유관련 전시회에도 참가

- 2013년 1월, 현지 바이어 Lisa International社와 3만 7,000 달러 규모의 납품계약 체결

○ 수출성약에는 한미 FTA 관세인하 혜택이 크게 작용

- 폴리에스터 원단은 센트(Cent) 단위로 납품여부가 결정되는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

- YD Textile의 제품은 저가 중국산에 비해 품질수준은 훨씬 높았으나 가격에서 밀려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인하*되면서 가격경쟁력이 제고됨에 따라 바이어들의 관심도 증가

* 관세 인하 : 14.9%(한미 FTA 발효 전) → 13.4%(2012년) → 11.9%(2013년), 2021년 완전철폐

품목명(15)	양념 바다장어 * 진공 포장된 가공장어로서 초밥 등에 사용됨	HS Code	1604.19.21
관세율 변화	4% → 3.2%(2013년 현재)	관세철폐스케줄	10년 균등 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對美 수출액 전년대비 42%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양념바다장어에 대한 시장통계 부재로 전체 수산물 수요동향 자료로 대체

○ 2011년 이후 수산물 수요 회복세 지속

- 2008년 이후 미국 경기부진으로 미국 내 수산물 수요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1년 이후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면서 다시 증가세로 반전

<미국 수산물 매출액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US$백만)	13,784.7	13,270.8	11,440.1	12,536.2	13,489.5
증감률(%)	0.5	△3.7	△13.8	9.6	7.6

주 : 수산물은 'Fish & Seafood' 기준

자료원 : IBIS World

- 특히, 최근 미국 소비자들의 근로시간 증가로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념바다장어가 속하는 '수산가공식품' 시장 성장세 지속

○ 미국 내 양념바다장어 주요 소비계층은 아시아계

- '양념바다장어'의 특성 상 아직 현지 미국인보다는 아시아계 인종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

  * 2012년 말 기준, 미국 내 아시안 인구는 1,820만 명으로 추산(자료원 : Nielsen)

- 양념바다장어의 주요 판매처는 미국 동부지역 기준, 한아름마트(H-Mart), 한양마트, 한남체인 등 한인 식품체인점

□ 경쟁동향

○ 제품 특성상 미국 국내 업체와의 경쟁은 없는 상황

* 미국 내 양념바다장어 공급업체는 모두 해외 기업인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주요 양념장어 수입국은 중국

- 2011년까지 중국산 양념민물장어(우나기 가바야끼)가 미국 양념장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수입량 대폭 감소
- 양념장어를 포함한 가공 생선류(HS Code 1604.19.21) 수입시장은 중국(72%), 대만(17.7%), 필리핀(4%) 등이 전체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점유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1년 이후 對美 수출 회복세 지속

- 2012년 기준, 국산제품 對美 수출액은 약 23만 달러로서 수출금액 자체는 여전히 적지만 전체 가공 생선류 수입 시장이 약 46%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42% 증가하는 등 수출 호조세

  * 상기 수출액은 美측 HS코드 1604.19.21기준
- 2010년에는 對美 수출액이 전년대비 53% 감소하는 등 부진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큰 폭의 회복세를 보였으며,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에는 전년대비 42.8%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35,108.6	38,055.8	17,487.8	-54.0
2	대만	3460.4	3936.0	4302.8	9.3
3	필리핀	145.3	349.5	784.3	124.4
4	페루	0.0	220.2	288.4	31.0
5	베트남	104.0	283.7	274.5	-3.2
6	한국	35.4	161.8	231.1	42.8
합계		42,440.3	44,829.6	24,289.8	-45.8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 제고

- 동 제품은 10년 균등 관세인하 대상 제품으로 한미 FTA 발효 1차년도의 관세인하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4.0% → 3.6%), 중국산 제품의 발암물질 검출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관세인하 효과 배가

○ 현지 시장기회를 활용한 시장성 있는 제품 적기 출시

-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양념장어는 그동안 중국산 양념민물장어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2년 발암물질 검출 이후 중국산 수입이 대폭 감소하면서 가격도 급상승($150/10kg → $420/10kg)

- KOTRA 뉴욕 무역관은 이러한 시장상황을 간파하여 적격 국내업체 G사를 발굴, 미국시장에 적합한 양념바다장어를 개발하여 현지 유통업체에 납품(2012년 납품액 16,800 달러)

품목명(16)	휴대폰 케이스	HS Code	4202.99.90
관세율 변화	20.0%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對美 수출액 전년대비 45%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휴대폰 케이스 시장수요 급증세

- 미국 휴대폰 액세서리 시장규모는 2012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32% 성장하는 등 시장수요 확대 지속(자료원 : NPD Group)
- 특히 휴대폰 케이스의 경우, 동 기간 동안 평균가격이 25%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69% 증가하는 등 실질적인 수요 증가세 시현
  * 휴대폰 액세서리 제품 중 휴대폰 케이스의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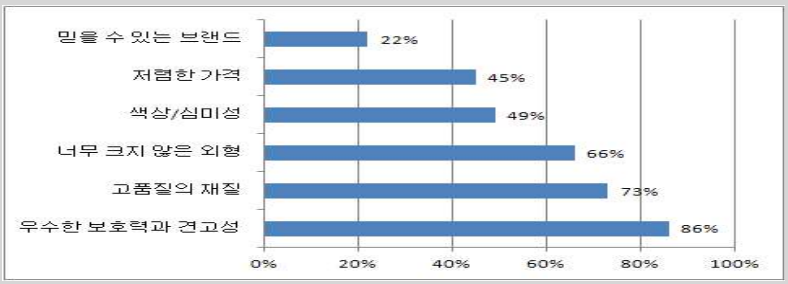
○ 수요증가 요인 : 스마트폰 보급 확대, 스마트폰 보호 필요성 증가

- 2012년 말 기준, 미국 스마트폰 사용자수는 1.25억 명에 달하고 있으며 2012년 4분기에만 1,000만 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스마트폰 보급 급증세 지속
- 스마트폰은 피쳐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한 편이므로 스마트폰 보호 장치에 대한 수요도 높은 상황

☞ **[참고] 휴대폰 케이스 구매 결정의 주요 요인은?**

- 시장조사 전문기관 NPD Group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폰 케이스 구매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우수한 보호력과 견고성'(86%)
- 반면, '저렴한 가격'(45%)과 '브랜드'(22%)는 소비자들의 구매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복수 응답)

<휴대폰 케이스 구매의 주요 요인 설문 결과>



○ 향후 시장전망 : 애프터마켓 시장 급성장 예상

- 美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다양한 종류의 휴대폰 액세서리 구입 희망 → 휴대폰 소매업체의 매출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Amazon, eBay 등과 같은 애프터마켓 시장이 팽창할 전망
- 2012년 휴대폰 액세서리 애프터마켓 규모는 36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규모는 200억 달러로 전체의 약 55% 차지 (ABI Research)
-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규모는 2017년 380억 달러까지 급증할 전망이나 피쳐폰 액세서리 시장규모는 120억 달러까지 감소할 전망

□ 경쟁동향

○ 미국 휴대폰 케이스 시장은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시장

- 업체별 시장점유율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는 iForgz, OtterBox, Case Logic 등으로 파악
-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속도가 빨라지면서 신속한 신규 휴대폰 모델 파악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

► 국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아이폰 등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에 앞서 제품 규격을 사전 입수하여 미리 휴대폰 케이스를 제작하는 것이 판매확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함.

○ 미국의 주요 휴대폰 케이스 수입국은 중국, 멕시코, 대만 등

- 2012년 기준, 휴대폰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류(HS Code 4202.99.90 기준) 수입액은 약 4.5억 달러로 전년대비 102% 증가
- 국별로는 중국이 전체 수입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멕시코(12.8%), 대만(10.9%), 이스라엘(1.7%), 한국(1.2%)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제품 특성상 중국에서 OEM 방식 등으로 제조되어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0년 이후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 시현

- 한국산 휴대폰 케이스류 對美 수출액은 2008~09년 동안 미국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부진을 보였으나 2010년 이후 큰 폭의 회복세 지속
  * 연도별 수출증가율(%) : △37('08) → △36.8('09) → 1,487.6('10) → 75.1('11) → 44.6('12)
- 이는 미국 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수요 증가와 함께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20% 관세 철폐) 효과에 힘입은 바 큰 것으로 분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128.7	156.0	285.2	82.8
2	멕시코	0.3	14.2	52.0	264.9
3	대만	2.5	8.0	44.1	450.4
4	이스라엘	4.8	5.9	6.9	17.0
5	한국	1.9	3.4	4.9	44.6
6	일본	3.7	4.4	2.5	-43.8
합계		148.2	200.8	405.9	102.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차별화된 제품으로 경쟁 치열한 美 휴대폰 케이스 시장 공략

- 무늬목 전문업체인 I社는 급성장하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 시장 진출을 위해 무늬목 제작을 통해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천연목 휴대폰 케이스 개발(2011년)
- 동사가 개발한 천연목 휴대폰 케이스는 고유의 기술과 공법으로 가공하여 제조한 것으로 온도나 습도 변화에도 쉽게 뒤틀리지 않는 등 품질 수준 우수(제품사진 아래 참조, 자료원 : google)

- 동사는 전세계적인 자연친화적이 제품의 유행에 발맞추어 미국시장을 타깃 시장으로 설정하고 2012년부터 천연목을 활용한 제품 차별화로 미국시장 공략에 나섬.

○ 한미 FTA로 가격경쟁력 한계 극복

- I社는 자체적인 마케팅 활동 및 KOTRA 뉴욕무역관의 조사대행 서비스를 통해 거래선 발굴에 주력하였으나, 원목이 포함된 제품 특성상 경쟁제품 대비 가격이 높아 미국 바이어들과의 거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음.
- 이처럼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던 I社는 한미 FTA 발효로 기존 20%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서 경쟁제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
- 소재와 디자인으로 제품이 차별화된 데다 가격경쟁력까지 갖추며, 2012년에 美 5대 휴대폰 케이스 업체인 ifrogz에 200,000 달러 규모의 제품을 납품하는 등 한미 FTA 발효 이후 현지 바이어들과의 거래 확대

품목명(17)	산업용장갑	HS Code	6116.10
관세율 변화	13.2%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對美 수출액 전년대비 27%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2011년 기준, 미국 장갑산업 규모는 전년대비 16.5% 증가한 48.6억 달러

<미국 장갑산업 규모>

구분	가죽재 장갑	보호용 장갑	섬유재 장갑
시장규모(U$만)	17,800	380,000	88,300
증가율(%)	30.3	13.1	35.2

주 : 시장 수요 기준, 2013년 2월말 기준 가장 최신 통계

자료원 : International Glove Association

○ 수요 다변화로 산업용 장갑 생산방식 변화 : 대량생산 → 특화생산

- 과거에는 대량생산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장갑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분화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품질수준을 높일 수 있는 소량 특화생산 방식으로 변화

○ 향후 시장전망 : 정부규제 및 안전의식 강화로 지속적 시장성장 예상

- 산업현장의 작업환경에 대한 정부의 안전규제 강화와 기업 자체적인 안전의식 강화로 산업용 장갑 시장규모는 2010년 19억 달러 → 2017년 22.7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자료원 : Frost and Sullivan)

□ 경쟁동향

○ 수입시장 의존도 높은 편

- 미국 내 산업용 장갑 생산업체는 3M Company, Honeywell, Wells Lamont Corporation 등이 있으나 국내 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

○ 미국의 주요 산업용 장갑 수입국은 중국, 스리랑카, 한국 등

- 2012년 기준, '플라스틱 또는 고무코팅 장갑류'(HS Code 6116.10) 수입액은 3억 9,800만 달러로 전년대비 7.5% 증가
- 국별로는 중국(42.3%)과 스리랑카(16.4%)가 전체 수입시장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8.8%), 말레이시아(7.3%), 멕시코(6.3%) 순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0년 이후 對美 수출액 지속 증가

- 한국산 산업용 장갑의 對美 수출액은 2010년 이후 미국 경기회복과 재고물량 소진의 영향으로 꾸준한 증가세 시현
  * 연도별 수출 증가율(%) : 72.1('10) → 0.03('11) → 27('12)
-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국산 산업용 장갑의 對美 수출액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3,503만 달러 기록
- 최근 한국산 제품의 對美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주요 요인은 중국 등 경쟁국 제품 대비 월등한 품질과 수입관세 즉시 철폐에 따른 것으로 분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120.3	166.6	170.4	2.3
2	스리랑카	43.8	60.1	65.1	8.3
3	한국	27.6	27.6	35.0	27.0
4	말레이시아	21.4	20.5	29.2	42.2
5	멕시코	24.6	24.8	25.2	1.9
합계		292.0	370.1	397.8	7.5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기업 신뢰도와 우수한 품질수준을 바탕으로 대형 바이어 공략

- 폴리우레탄 코팅 나일론 장갑 및 HDPE(High Density Polyethylene) 특수 장갑 전문 생산업체인 C사는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美 최대 규모의 산업재 유통업체인 Grainger社를 타깃으로 시장진출 시도
- Grainger社는 연간 매출액 60억 달러의 초우량 기업으로서 미국 산업재 공급업계에서는 Grainger社 대상 납품은 '성공의 보증수표'로 인식
- 초기 접촉 시 Grainger社는 C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한국의 수출 지원 기관인 KOTRA 수출인큐베이터에 입주해 있다는 사실과 지속적인 샘플공급으로 기업 신뢰도와 품질 우수성 각인
- Grainger社 접촉 이후, 1년 6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2012년 5월에 40만 달러 규모의 납품계약 체결

○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입관세 철폐로 한국산 구매물량 확대 조짐

- 한국산 산업용 장갑의 경우, 품질수준은 우수하나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가격이 높아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한미 FTA 발효로 13.2%에 달하는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경쟁력 크게 개선
- 이에 따라, Grainger社는 2012년 6월 초 C사의 생산 공장을 실사한 이후 중국 등에서 수입 중인 산업용 장갑의 상당 부분을 C사 제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현재 상담진행 중)

품목명(18)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	HS Code	39173900
관세율 변화	3.1% → 2.4%	관세철폐스케줄	10년 균등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32.37%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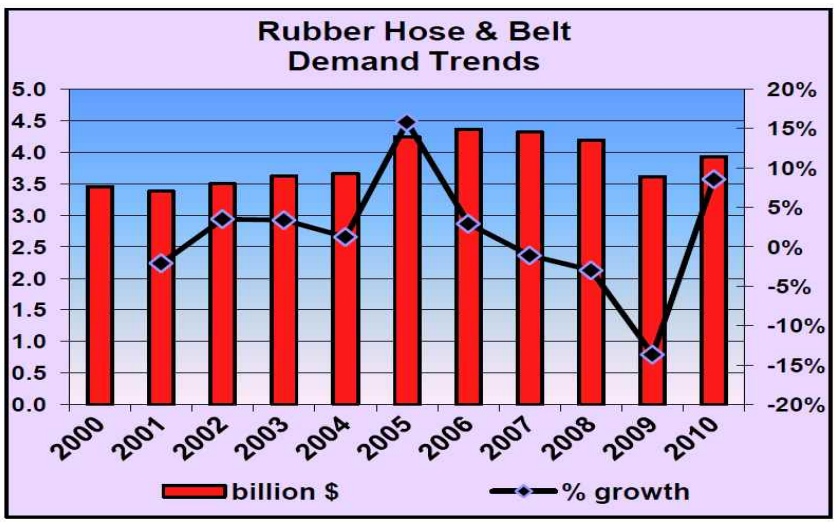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 고무 및 플라스틱 호스/벨트 시장은 2010년 기준 전년 대비 약 8.6%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

○ 2008년에서 2009년까지 극심한 미국 경기 침체에 따라, 주요 수요처인 기계 및 자동차 시장 부진으로 동반 침체를 겪음.

- 동 시장의 주요 수요처는 기계 산업이 전체 수요의 약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이 17%, 항공 및 운송기기 시장이 4%를 차지

<미국 고무 호스, 벨트 시장 수요 및 증감률>



자료원 : Freedonia Group, Inc

□ 경쟁동향

○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경쟁 치열

- 고무호스 및 벨트 시장은 Parker-Hannifin, 영국 업체인 Tomkins사와 Veyance Technologies, Eaton 등의 대기업들이 경쟁하고 있음.
- Veyance Technologies(Goodyear)는 시장 내 가장 큰 점유율(12.3%)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용 및 농업용 제품 등을 미국 전역에 납품

○ 호스 시장은 제품별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업체에 품질 및 성능 우수성에 대한 신뢰도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미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음.

-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 주기 위해서는 산업별 주요 인증서 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한국산 제품 수출 전년 대비 약 32.37% 급증

- 가장 많은 대미 수출액을 기록한 국가는 캐나다로 전체 수출액의 30.81%를 차지한 약 1억 2,300만 달러를 기록
- 지난해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약 188만 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2.37% 급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캐나다	56,747	95,946	123,215	28.42%
2	중국	67,692	82,403	107,736	30.74%
3	독일	21,140	30,757	36,399	18.34%
4	멕시코	24,134	21,612	30,797	42.50%
5	타이완	18,621	18,932	26,020	37.44%
14	한국	1,134	1,420	1,879	32.37%
합계		249,722	318,078	399,895	25.72%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한국 업체 P社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적극적으로 시장 공략

- 동 업체는 관세율 인하 혜택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의 미국 현지 지사를 통해 직접 수입,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파
- 따라서 동사는 미국 현지에 지사를 설립하고 직접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한 후, 구축된 유통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할 계획을 추진 중임.

○ 한미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한국산 제품의 통관도 빨라져 배송시간이 단축, 재고 확보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 이러한 시장 변화 및 납품 노력으로 지난 2012년부터 연간 200만 달러 규모의 판매망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

품목명(19)	플라스틱 용기	HS Code	3923
관세율 변화	3.0% → 2.4%	관세철폐스케줄	10년 균등 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6.8%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플라스틱 용기는 한 산업이 아닌 다양한 여러 산업에 수요가 있는 다목적 제품으로, 특히 최근 미주 내 트렌드인 친환경적인 요소를 생각하여 마케팅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

□ 경쟁동향

○ 기존 미주 플라스틱 제조업체의 지역적 유통구조를 이해하고 현지 바이어들에게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서플라이어로서의 경쟁성을 입증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슈

○ The freedonia Group에 따르면 2016년 플라스틱 용기 시장 규모는 320억 달러에 이를 전망

<세계 플라스틱 용기 시장 선도기업 현황>

(단위 : 명, 백만 달러)

회사명	종업원 수	매출액	사업부문
Newell Rubbermaid Inc.	18,300	5,902.70	가정용품 위주
Spotless Group Limited	37,000	2,872.15	정리용품 위주
Tupperware Brands Corporation	13,000	2,583.80	가정용품 위주
Srithai Superware Public Company Limited	4,500	238.35	다목적 용품
ClosetMaid Corporation	1,300	126.00	가정 용품 위주
Suncast Corporation	800	66.80	가정 용품 위주
Knape & Vogt Manufacturing Company	640	55.90	사무용품 위주
Home Products International, Inc.	534	44.10	가정용품 위주
Plano Molding	285	42.90	야외용품 위주
Uniek Inc.	375	27.70	가정용품 위주

자료원 : The freedonia Group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대미 수출액 전년대비 6.8% 증가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1,652.99	1,815.43	2,015.54	11.02
2	캐나다	1,499.36	1,609.28	1,618.87	0.60
3	멕시코	460.91	491.82	520.02	5.73
4	대만	229.30	257.09	283.49	10.27
5	한국	135.08	163.26	174.36	6.80
합계		5,141.12	5,636.75	5,992.35	6.31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B社는 2012년 이전에는 수출성약이 전무하였으나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에 참여하며 신규 바이어를 발굴, 2012년 12월 최초의 대미 수출실적 기록

- 이는 2012년 3월에 발효된 한미 FTA의 관세율 인하가 성약 실적 성공 요인 중 하나로 분석

품목명(20)	열쇠고리	HS Code	73269085
관세율 변화	2.9%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57.6%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미국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념품 및 홍보 용품 시장은 지난 몇 년간의 금융 위기로 인한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서서히 회복세

- 기념 및 홍보 용품 시장은 기업들의 마케팅 비용 확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또한 관광지에서 판매되는 기념품 시장은 관광 시장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성이 있음.
- 업체 간 경쟁이 심화되고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판매마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음.

○ 극심한 침체를 겪은 2008년과 2009년 이후 연평균 약 3-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기대하긴 힘든 상황

□ 경쟁동향

○ 저가에서부터 고가제품까지 다양하며 중국산 저가제품이 시장의 대다수를 장악

- 전체 시장의 3%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주도 기업이 없으며 많은 중소기업과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업체들이 주종을 이룸.
- 경쟁 제품이 많아 제품 간 직접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좋아하고 눈에 띄는 독특한 디자인 제품을 개발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
- 또한 제품 수명이 짧고 유행과 트렌드가 급변하고 있어 제품개발과 디자인을 통한 차별화 노력이 요구됨.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열쇠고리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6% 급증

- 열쇠고리가 포함된 금속 관련 기타 제품(Iron or steel, articles, nesoi)의 수입시장 규모는 2012년 약 3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14.5% 증가
- 2012년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7.6% 급증한 7,856만 달러를 기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천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768,807	871,848	978,762	12.3
2	캐나다	354,187	400,104	449,151	12.3
3	멕시코	316,438	387,503	415,357	7.2
4	독일	112,613	144,603	171,734	18.8
5	일본	132,506	123,897	169,837	37.1
8	한국	31,022	49,854	78,560	57.6
합계		2,277,786	2,679,378	3,067,450	14.5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열쇠고리를 생산 및 수출하는 H社는 중국산 제품이 지배하는 미국 시장에서 독특하고 눈에 띄는 디자인으로 미국 시장 수출이 지속 증가

- 서핑보드와 스노우보드 형상을 이용한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한 것이 강점

○ 한미 FTA 발효로 기존 2.9%의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가격 조건에서 중국산 제품에 밀려 고전하던 한국산의 경쟁력이 상승하여 기존 바이어들로부터 주문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

- 홍보 및 기념품은 바이어들이 특정 카테고리별로 적정 판매 가격을 정해 놓는 특성 상 납품 단가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열쇠고리의 경우 적정 소비자 판매 가격을 미리 5달러로 정해 놓고 구매 가격을 결정
- 아무리 차별화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바이어들은 중국산 제품과 가격을 비교,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구입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단가 인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함.

품목명(21)	LED 조명	HS Code	9405.40
관세율 변화	3.9~6.0% → 0%	관세철폐스케줄	즉시철폐
FTA 발효전후 對美 수출동향	2012년 對美 수출액 전년대비 104% 증가		

□ 수요동향 및 전망

○ 북미 LED 조명시장의 폭발적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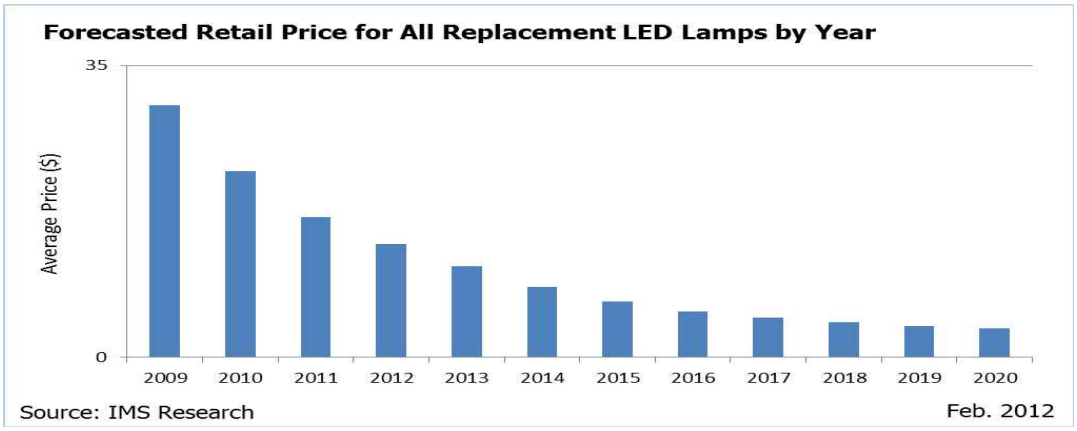
- 북미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LED 조명시장으로 2012년 기준 시장규모는 6.3억 달러로 추정(자료원 : GTM Research)
- GTM Research는 향후 북미 LED 조명 시장은 2013년에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16년까지 연평균 40%의 높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 정부정책 및 가격 하락이 북미 LED 조명시장의 급성장 견인

- 미국 정부는 LED 보급 확대를 위해 백열등 판매를 금지하는 'EISA(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2007 Section 321' 법안 입법완료
- '12년부터 100와트, '13년에는 75와트, '14년에는 40와트 및 60와트 백열등 판매가 금지 → 백열등 판매금지로 대체재인 LED 조명 수요 확대
- 그동안 높은 LED 조명 가격이(20~50달러)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나 최근 기술발전과 경쟁심화로 LED 조명 가격 꾸준히 하락

* LED 조명시장 전문 조사기관인 IMS는 2014년 LED 조명 가격이 10달러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

<글로벌 LED 조명 가격 추이 및 전망>



□ 경쟁동향

○ 북미 LED 시장은 상위 3개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는 과점시장

- LED 조명에 대한 정확한 시장점유율 통계는 없으나, ISM은 Philips, Osram, GE 등이 전체 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이 외에 후발주자인 삼성, LG, 샤프 등이 본격적으로 LED 조명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 LED 조명 수입시장은 중국산 제품이 석권

- '12년 기준, 중국산 LED 조명은 전체 수입시장의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멕시코(13.1%), 캐나다(3.7%), 대만(1.84%)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큰 격차
- 중국, 멕시코, 캐나다산 LED 조명이 미국 수입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주요 LED 조명 생산업체의 생산 공장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

□ 한미 FTA 발효 전후 對美 수출동향

○ 2012년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813만 달러

- 2011년에는 전년대비 146.4% 증가한 890만 달러를 기록한 바 있음.
- 對美 LED 조명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와 국내 기업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 때문으로 분석

<수입 대상국 및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10	2011	2012	증감률(%)
1	중국	1,354.5	1,547.0	2,077.1	34.3
2	멕시코	274.1	224.7	377.9	68.2
3	캐나다	61.9	91.9	107.5	17.0
4	대만	29.8	36.7	53.2	44.8
5	독일	36.0	43.2	40.6	-6.0
6	한국	3.6	8.9	18.1	103.9
합계		1,854.7	2,086.1	2,884.0	38.3

자료원: World Trade Atlas

□ 한미 FTA 활용 對美 수출 성공사례

○ 한미 FTA에 발효에 따른 관세 철폐로 가격 경쟁력 제고

- 국내 LED 조명 제조업체인 H社는 품질 면에서는 호평을 받았으나 가격 면에서 중국 등 경쟁국에 밀려 미국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옴.
- 미국 LED 조명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인하 압력도 높아 판매업체의 마진율이 매우 낮은 상황으로 1%의 가격 인하에도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정도로 가격에 매우 민감한 시장
- 이처럼 가격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한미 FTA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H社 제품의 가격경쟁력 크게 제고

○ 전시회 통해 美 대형 바이어와 상담 기회 획득

- 품질과 가격에서 모두 경쟁력을 확보한 H社는 2012년 한국에서 개최된 LED EXPO에 참가해 연매출 5천만 달러의 미국 대형 바이어인 MaxLite와 수출 상담과 F/U을 통해 수출 성약*

  * 2012년 H社의 미국 수출액은 500만 달러 이상

3 바이어 인터뷰를 통한 시장여건 전망

1. 자동차부품

회사명(1)	F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자동차	U$ 1,340억	17만 명
인터뷰대상자	Global Vendor Tooling 담당자		
인터뷰 내용	- FTA 발효를 통해 자동차 부품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향후 한국산 부품의 소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한국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품질의 부품을 생산하며 가격 경쟁력도 일정 수준 이상이고 부품 설계능력도 뛰어남. - 한국 업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바이어 접촉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함. - 특히, 현지 문화와 언어에 익숙한 현지인을 고용하여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함. - 일부 자동차 부품은 중국 업체에 비교해도 한국 업체가 더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회사명(2)	M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자동차	U$ 11억 5,000만	3,600명
인터뷰대상자	직위 : Chassis Powertrain 바이어		
인터뷰 내용	- FTA 발효를 통해 동사와 한국 기업 간의 비즈니스가 향후 몇 년간 최소한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최근에는 품질도 일본의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 상당수 한국 부품 업체들은 대형 글로벌 업체에 납품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음(품질 및 재정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국 업체와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이 꺼려지는 게 사실임) -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진출을 더욱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 설비를 갖추거나 최소한 기술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납품 업체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함.		

회사명(3)	D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자동차 부품	U$ 13억 5,000만	3,600명
인터뷰대상자	CPSM 담당자		
인터뷰 내용	- 한국 공급업체들은 글로벌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 -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은 가격 및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뛰어나며, 일본 기업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 - 한국 업체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바이어와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항상 느리다는 점인데, 모든 일을 결제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 관행이 문제라고 보임. - 공급 업체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품질, 가격, 재무건전성, 그리고 성장 가능성		

회사명(4)	G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자동차 부품 (사이드미러, camera-based driver-assist system 등)	U$ 11억	3,600명
인터뷰대상자	Account Sales Manager		
인터뷰 내용	- 현재 한국보다는 일본과 대만, 현지에서의 조달비중이 크나, 향후 한국산 제품의 조달을 확대할 계획 - 현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소규모인데, 이는 한국 제품이 품질은 우월하지만 중국과 대만 제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은 것이 이유 - 또한, 한국 기업들이 업무상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음. 미국 기업들과의 거래 경험을 키우고 다국어 인력들을 보유하여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미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		

회사명(5)	A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자동차 부품	U$ 61억	53,000명
인터뷰대상자	Vice President		
인터뷰 내용	- 기존에는 대부분의 부품을 중국, 대만, 일본 등지에서 수입하였는데, 최근 대만에 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아시아지역 소싱에 박차를 가하던 중 한미 FTA가 발효되어 관심을 가짐. - 대부분의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철폐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품질은 좋으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던 한국산 제품이 한미 FTA 발효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 - 한미 FTA 발효와 관련 한국산 부품 소싱에 관심이 크며, 액세서리, 에어콘 시스템, 엔진 시스템, 서스펜션, 샤시 등 애프터마켓 자동차 부품 전반에 걸쳐 관심 있음.		

2. 전자기기 및 부품

회사명(1)	ATG Electronics Corp	
기업개요	취급품목	본사 위치
	LED 등 조명기구	캘리포니아
인터뷰대상자	Nemo Yuan (직위 : 구매담당자)	
인터뷰 내용	- 한국산 제품이 다른 나라의 제품들보다 우수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도 높기 때문에 향후 계속 한국 제품을 사용할 계획 - LED의 높은 안정성과 친환경적 요소 등으로 정부 기관과, 호텔, 병원, 대학교와 고등학교 교실 등에 설치를 더 장려하고 있어 LED 조명시장 전망도 밝음. - 한미 FTA 발효로 우수한 한국 제품을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어 한국 기업과의 거래 및 제품 구매를 확대할 계획 - 한국 업체를 위한 조언 ① 전망이 좋은 만큼 경쟁 업체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증과 특허 획득을 통한 차별화 필요 ② 미국 시장에 진출 할 때에는 방열 설계를 하거나 배광 분포를 넓히는 등, 미국 시장에 맞는 LED제품 개발이 필요	

회사명(2)	Radio Shack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전자기기 소매	U$ 43억 7,800만	34,000명	텍사스
인터뷰대상자	Darrell Brown (직위: Director of product management)			
인터뷰 내용	- 미국 전자기기 소비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동사는 마진의 폭을 좁힐 수 없어 중국산 제품들을 선호해 왔음. -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그 동안 잠재적 구매처로 생각해왔던 한국산 전자기기 관련 액세서리 제품 및 독특하고 시장 트렌드를 빨리 반영할 수 있는 제품들을 눈여겨보고 있음. - 한미 FTA에 따른 한국 업체 가격경쟁력 증가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입을 원함.			

회사명(3)	P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보안기기 유통 (CCTV, DVR 등)	U$ 100만	500명
인터뷰대상자	Branch Director		
인터뷰 내용	- 작년 보안기기 시장은 저가와 고가 제품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중간 가격의 제품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보안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높아졌으나 비용절감을 위해 저가 제품의 수요가 증가, 올해에도 시장 내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의 저가 제품들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한미 FTA 발효로 한국산 제품의 5% 관세가 철폐되었으나 기존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 - 이에 반해 중국산 제품의 기술력은 날로 향상되고 있어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이 필요. (예를 들어, 중국산 제품은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Chrome, Safari 등) 사용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산은 단일 브라우저만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나, 문제점을 발견하고 제시할 경우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경우가 많음)		

3. 섬유 및 의류

회사명(1)	Ralph Lauren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의류	U$ 68억	500명	뉴욕
인터뷰대상자	Senior Director			
인터뷰 내용	- 현재 수입중인 한국산 직물은 합성섬유, 스포츠 의류용 테트론 섬유직물, 의류 라이닝, 실크 올간자 등임. - 원가절감을 위해 이태리산 직물 대체재로 중국산 원단을 한국에서 프린트해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음. - 의류 완제품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비중이 적고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아 관세인하 혜택은 제한적인 상황 - 일부 미국 중저가 대형 유통업체들은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의류를 소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한국 원단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원단 수입에 대해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진 소싱 부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국 상품의 우수성과 소싱 기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회사명(2)	Guess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의류	U$ 26억 9,000만	14,300명	LA
인터뷰대상자	Cherry Pang (직위 : Assistant Fabric Manager)			
인터뷰 내용	- 한미 FTA가 한국 제품 조달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수 제품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연결되고 있음. - 한국 업체들이 매우 협조적이고, 혁신적이며, 유행에 민감함. - 이러한 한국기업들의 장점과 한미 FTA 발효가 맞물려 한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회사명(3)	American Apparel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의류	U$ 5억 4,700만	10,000명	LA
인터뷰대상자	John Chung / Product Planning			
인터뷰 내용	- 한미 FTA 발효로 쉬폰 등의 한국산 원단의 가격경쟁력 강화 - 한국산 제품은 타국 제품보다 품질이 월등하며,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었음. -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으로 수입선을 전환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조만간 한국 방문을 계획 중 - KOTRA를 통해 한국의 제조업체들과 연결될 수 있어 매우 좋은 사업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음 * 동 사는 베이직 패션 의류 제조 및 유통 업체로, LA에서 직접 생산 및 유통			

회사명(4)	Armani Exchange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의류	U$ 18억	850명	밀라노
인터뷰대상자	Director			
인터뷰 내용	-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 패션시장 전반에 인조가죽, 비스코스, 폴리에스터 등 합성섬유를 위주로 한국 제품으로의 수입선 전환 움직임이 있음. - 한국 섬유는 한미 FTA에 힘입어 좋은 품질과 경쟁력 있는 가격대의 제품으로 미국 시장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 의류의 미국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이 필요			

4. 기계류

회사명(1)	C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건설 중장비	U$ 659억	152,983명	일리노이
인터뷰대상자	한국 지사장			
인터뷰 내용	- 미 경제는 아직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향후 몇 개월간의 실적은 2013년 한 해 건설 중장비 시장을 판가름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 한국산 중장비 부품은 기술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동 사의 품질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 품질 뿐만 아니라 생산시스템, 서류, 의사소통 등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음. - 지난 몇 년간 한국산 부품 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새로운 사업기회 확대에 따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를 확대할 계획임.			

회사명(2)	MDM Bearing, Inc.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본사 위치
	베어링	U$ 2,000만	플로리다
인터뷰대상자	David Alfaro (직위 : Director)		
인터뷰 내용	- 기존에는 주로 중국, 프랑스, 스페인 등 국가에서 수입을 하였으나 FTA 발효 이후 한국 기업과의 거래에 관심이 많음. - 최근 거래한 한국 기업이 수출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한미 FTA에 따른 효과를 언급한 적이 있음. - 한국 기업들은 취급 제품의 관세 혜택, 원산지 규정에 대해 상세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음. (콜롬비아, 페루, 칠레 등 대미 FTA 체결국가 수출 기업들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음)		

5. 식품

회사명(1)	S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식품	U$ 420억	47,800명	텍사스
인터뷰대상자	International Department 관계자 J			
인터뷰 내용	-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 - 한미 FTA 발효로 관련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대부분 철폐되어 한국 식품 수입을 고려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그러나 식품 산업은 수입 통관, 유통 등이 까다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한국 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방안 뿐만 아니라 위생 및 식품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함.			

회사명(2)	S社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식품 유통업	U$ 361억	130,000	미네소타
인터뷰대상자	Manager			
인터뷰 내용	- 미국 경기침체로 가치 있는 제품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품질은 유명 브랜드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자사 브랜드(PL; Private Label)에 대한 판매가 확대되는 추세 - 또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낮은 염분 및 글루텐이 없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 - 한국산 제품의 경우 음료수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품질은 매우 만족할 만한 수준이고,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경쟁력 있는 한국산 제품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음.			

회사명(3)	H Mart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식품, 생활용품, 소형가전 등	U$ 10억	1,000명	뉴저지
인터뷰대상자	Senior Director			
인터뷰 내용	- 한미 FTA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로 수입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어 한미 FTA의 수혜를 보고 있음. - 다만, 원산지 증명을 위한 서류 체계가 분명하지 않아 한미 FTA의 혜택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미셸 오바마가 김치를 담그는 등 미국인들의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식품의 인지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 정부조달 관련 제품

단체명(1)	Commonwealth of Virginia (버지니아 주정부)
기업개요	취급품목
	다양(IT, 건축자재, 서비스, 그린에너지, 사무용품, 의료용품 등)
인터뷰대상자	Jimmy Rhee (차관, Commerce & Trade)
인터뷰 내용	- 한미 FTA 체결로 한국산 제품의 조달 가능성 높아졌으나 직접적 조달 가능성 확대라기보다는 한국 업체들에 대한 이미지 향상 및 인지도 상승효과가 가장 큼 - 그러나 연방조달시장은 대부분의 연방부처들이 원스톱 구매를 선호,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는 대형 조달업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소규모 혹은 특정 제품생산에 특화된 한국 업체들의 경우 절충교역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함. - 정부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① 회사역량(corporate competency), ② 기술 및 자금력, ③ 제품생산 분야 관련 규제 및 정책에 관한 이해 등 세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나 대부분의 정부조달시장진출 희망하는 한국 업체들의 경우 세 번째, 즉 규제/정책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KOTRA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정부 유관기관 등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

단체명(2)	Raytheon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방산제품	U$ 2억 4,410만	71,000명	메사추세츠
인터뷰대상자	Amy Hannema (직위 : Regional Director)			
인터뷰 내용	- 미 국방예산 감축에 대한 우려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미국산 조달보다는 품질이 우수하면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한국산 제품을 소싱하는 것을 새로운 전략중 하나로 삼고 있음. - 따라서 적절한 벤더 발굴을 위해 한국 방문 추진을 고려 중 - 국방예산감축에 대한 우려로 방산시장이 축소될 것을 감안, 일반정부조달시장으로 타깃시장을 전환하는 움직임이 있으며 IT, 그린에너지, 건축 분야가 새로운 주요 타깃시장이 될 것으로 보임.			

단체명(3)	AFC(American Federal Contractors Inc.)			
기업개요	취급품목	연매출액	종업원 수	본사 위치
	트레이닝(facility management training, base operation)	N/A	500명	버지니아
인터뷰대상자	Peter Jung(직위 :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Federal Services)			
인터뷰 내용	- 최근 재정적자감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며 국방 및 정부조달 분야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 한미 FTA에 대해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홍보노력을 계속했으며, 내규(internal memo)를 통해 한국산 조달제품에 대한 혜택제공이 공지된 바 있음. - 동사는 한국조달업체 마케팅을 대행하고 있으며, 주로 대형 정부조달업체(prime contractor)에 접촉하여 정부에 납품하는 기업에 물품을 조달하는 절충교역을 주된 마케팅전략으로 활용 - 대형 정부조달업체들도 이 같은 절충교역관련 한국산 제품에 긍정적 반응 보이고 있어 향후 전망 밝아			

/끝/

작성자

◈ 뉴욕무역관 고일훈 차장
◈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임수주 과장
◈ 시카고무역관 장선영 과장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태균 과장
◈ 워싱턴무역관 권오승 과장
◈ 실리콘밸리무역관 최명례 과장
◈ 디트로이트무역관 김태균 과장
◈ 마이애미무역관 전미성 과장
◈ 달라스무역관 안중익 과장
◈ 선진시장팀 이명희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3-018

한미 FTA 발효 1주년, 對美 수출 성과 분석

발 행 인 | 오 영 호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3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3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